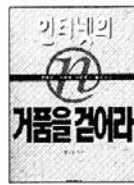


새로운 책



▲춤추는 물고기(김익수 지음, 다른 세상)= 우리 나라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 126종의 생태를 담은 환경과학서. 하천 상류의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 종, 중류에 사는 종, 하류에 사는 종, 연못과 저수지에 사는 종 등 서식지와 산란 습성 등에 따라 분류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나라 고유종과 멸종 위기에 놓여 보호해야 할 우리 물고기들을 따로 실었다. 민물고기들의 생김새와 생활습성을 도감이나 이야기체로 서술하고, 서식지를 같이 담아 생명에 대한 경의감을 갖게 해 준다. 값 1만3천원.



▲인터넷의 거품을 걷어라(김상현 지음, 미래 M&B)= 이 책은 '우리에게 인터넷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e-비즈니스 열풍을 통해 본 우리의 일상과 삶의 변화,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상상, 인터넷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쟁 아닌 전쟁들, 인터넷 포르노와 관음증, 노후종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 전자책, 사이버대학 등으로 인해 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 같은 주제를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통해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값 9천원.



▲기회의 땅 인도차이나(유영호·신수근 지음, 꿈과 비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체험한 생생한 경험들을 모아 정리한 인도차이나반도 이해의 길잡이. 특히 관광과 문화교류, 투자 등 인도차이나 지역을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가깝고도 먼' 인도차이나 3개국과 미얀마를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용정보와 이야기를 제공해 준다. 기회의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법도 소개한다. 값 9천원.



▲어머니가 하는 상담(방기연 지음, 정도)= 자녀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10가지 지혜가 담긴 책. 맑은샘 심리상담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기연 씨가 쓴 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나누려 할 때 부모 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말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부모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부모 역할 훈련서라 할 수 있다. 값 8천원.



▲마음의 창(현호성 지음, 정화사)= 참다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시와 칼럼집. 1부에서는 '화염의 계절' 등 43편의 시를, 2부에는 생각을 주제로 한 칼럼을, 3부에서는 수행자 명상시가 실려 있다. 값 7천2백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The Hidden Harmony' and 'The Great Secret'.

도서 안내:(02)737-0695

서구 지식인들 '동양의 지혜' 읽기

'승려와 철학자' '히말라야에서...' 등

미국·유럽 등지서 베스트셀러

번역서 한국 독자에도 상한가

지난해 불교 서점가의 소문나지 않은 베스트셀러로 <승려와 철학자>(장작시대)가 있다. 프랑스에서 6개월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으며, 전세계 16개 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이 책의 성격은 간명하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서양 철학자인 아버지(장-프랑수아 르벨)와 유망한 분자 생물학자였다가 티베트 불교의 수행자가 된 아들(마티유 리카르)이 나눈 이야기를 수록한 대담집이다. 이 시대에 서양인들이 불교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해답을 주는 책이기도 하다.



동양의 예지를 조명한 서구의 책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 번역,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것들은 이뿐이 아니다. 1911년 헤르만 헤세가 영혼의 고향인 인도를 여행하고 쓴 <인도여행>(푸른숲)에서부터 에드워드 콘즈의 <한글세대를 위한 불교·Buddhism>(세계사), <티베트의 지혜>(민음사), <아, 달라이라마 지혜의 큰바다>(동쪽나라),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솔),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황금가지) 등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에 이른다. 이런 책들의 공통적 지향점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꿰뚫는 동양의 지혜, 특히 불교사상이다.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계속 번져 가고 있는 '불교 신드롬'은 티베트 불교에서 출발한다.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89년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서구 지식인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높이 받들어지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해 1백만명 이상이 불교에 심취해 있고, 유럽에는 지식인 사회에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양의 사상을 담은 책들이 있다.

서양인들이 동양사상에서 구하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적 풍요로 정신이 황폐화된 서양인들이 그 돌파구를 동양사상에서 찾기 위함이라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



◇티베트 수행법을 배워 집단명상중인 유럽인들.

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념의 퇴조와 전체주의의 해체 그리고 상상과 화해가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서 개인의 각성이 주된 과제로 떠오른 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다면 당연히 삶과 죽음 등 존재론적 물음에서부터 운회, 열반 등 영혼의 세계를 넘나들며 궁극의 경지를 찾아가는 동양의 사유체계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남미와 유럽 그리고 동양에서도 번역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와 <승려와 철학자> 등을 통해 동양사상에 빠진 서양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이 역수입되어 그 본거지에서 호평을 받는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서양인들이 자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동양을 향하여 황소걸음을 걷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opia.com)

“첨성대는 수미산 도리천 상징”

김기홍 교수 '천년의 신라'

땅+31단+하늘=33천

“첨성대는 천년 관측대가 아니라 불교의 수미산(須彌山)을 표현한 종교적 상징물이다.” 건국대 김기홍 교수가 신라사를 개관한 <천년의 왕국 신라>(창작과비평사)를 통해 첨성대는 인간세상과 하늘세상을 연결하는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을 형성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첨성대의 둘 단층은 31단이지만 이 건물은 둘러싸고 그려지는 단층은 33단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우리가 고정적인 돌 건축물에만 집착할 때는 보이지 않고, 상상력이 풍부한 고대인들의 열린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두 개의 단이 있다는 것. 그 하나는 바로 기단석을 받치고 있는 땅이라는 이 세상의 단이고, 다른 하나는 첨성대 위에 얹혀 있는 하늘의 단이라는 것이다. 즉 첨성대는 인간세상과 하늘세상을 연결시키는 신단수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첨성대가 건립된 선덕여왕 때의 왕실불교 성격은 제석신앙이기에 첨성대가 상징하는 것은 33천의 도리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또 첨성대가 말장(井)자 인 것은 신라인들이 우물을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터널로 여긴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한다. 이런 사상이 도리천의 세계를 꿈꾸던 선덕여왕의 세계관과 만나서 지상으로 우물을 쌓아 올렸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첨성대는 우주목(세계목)인 우주 우물이라는 것이다. 불심이 돈독했던 선덕여왕은 첨성대를 통해 제석신이 이 땅에 강림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고대했거나, 제석전에 환생할 통로로서 이 우주 우물을 이용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한다.

그 동안 학계 안팎에서 첨성대의 기본 기능과 구조, 상징성을 두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었다. 끝없는 논란 속에 새롭게 제기된 '첨성대 33 도리천' 주장에 대한 학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실천 수련 중심 氣체험



고준환 교수 '한 생명 상생법'

새 천년 세계의 화두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고준환(경기대 법학부) 교수는 '한 생명 상생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우주는 한 생명이고, 개체 생명들도 그 원리에 따라 상생(相生) 조화를 이루며 생명 상생체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이 한 생명 상생법의 개념이다. 이러한 상생생활, 수련법 등을 담고 있는 책이 <우주적 오르가슴-한생명 상생법>(우리)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지식전달보다는 실천수련에 중점을 두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 마음·기·몸 수련 등 세 부분으로 나눠 단점회합법을 비롯 기수련 10단계, 기수련 유의점 등을 수록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만화로 읽는 인도철학이야기

조준상씨 '깨달음의 길'

인도철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만화 입문서 <깨달음의 길>(서광사)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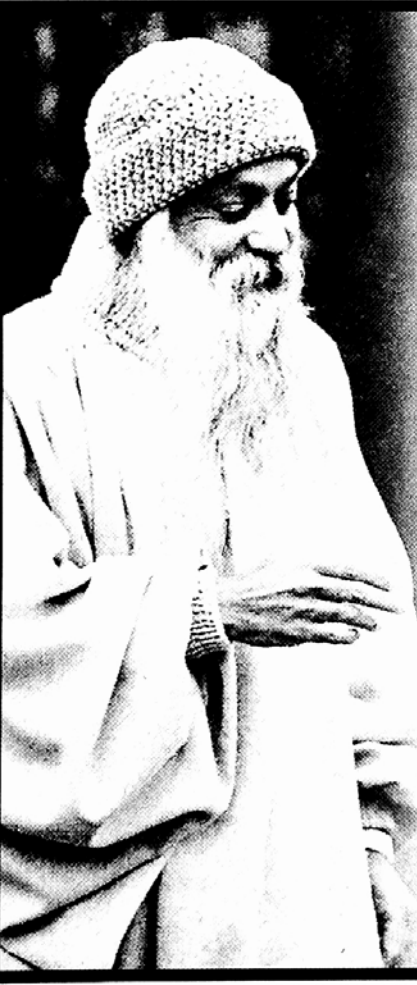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부터 불교, 자이나교, 브라만의 유파철학 등 인도 철학사상 전 분야 사상가의 생애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이 가운데 두타행의 1인자로 알려진 마하카사파의 전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마하카사파는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전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고 부부가 모두 출가하여, 부처님의 수제자가 되어 큰 업적을 남긴 수행자이다.

이 책은 아즈나발키야, 샹카라, 크리슈나, 싯다르타, 바수반두, 라마크리슈나, 마하트마 간디 등 인도의 주요 사상가의 삶과 사상을 시대순



으로 그리고 있어서, 인도의 주요 철학 사조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서광사가 철학 만화 시리즈로 기획한 이 책에 앞서서, 1권 그리스 철학 <너 자신을 알라>, 2권 중세 철학 <믿음으로 구원을>, 3권 중국 철학 <음양의 조화>는 이미 출간됐다. 서광사는 "내용이 평이하면서도 철학적 메시지를 읽기 쉬운 만화 형식으로 담고 있어 자연스럽게 철학적 사유방식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 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 진정으로 보기 드문 곳이다. 그에겐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그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 01. 티베트 불교 I, 02. 티베트 불교 II, 03. 티베트 불교 III, 04. 티베트 불교 IV, 05. 범경 I, 06. 범경 II, 07. 금경, 08. 반야심경, 09. 티베트, 더없는 깨달음, 10. 십우도, 11. 선심명, 12. 허안 연술집(아사라 강론), 13. 대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대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책의 책은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ilpub@chollian.net tel. 927-2831-4 fax. 924-3236

태일출판사